

“아직도 널 기다린다, 제발 돌아와라!” 비오는 팽목항 절규만

23명 여전히 실종...가족들의 기다림 계속 아빠들은 술·담배 의지하며 고통의 나날

마르지않는 눈물

정확히 한 달 전 단원고학생 325명은 다음날 떠날 수학여행을 앞두고 들뜬 마음에 쉽게 잠에 들지 못했다. 4월 15일 학생 등 승객과 승무원 476명(추정)을 태우고 밤 안개가 낀 인천항을 떠나 제주도로 향했던 세월호는 이날 오전(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승객 등 157명은 구조됐다. 하지만, 선장 등 선박 승무원 15명은 ‘승객 구조 의무’를 저버리고 도망쳤다. 부상당한 동료들 못본 채 하고, 남아있던 학생들에게 ‘자리에서 대기하라’는 말만 남기고 배를 떠났다.

세월호 참사가 15일로 한 달을 맞이한다. 하지만 14일 오후 6시 현재 최소 23명이 여전히 실종자 명단에 남아있고, 가족들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의 행렬도 그치지 않고, 구호품도 여전히 진도로 집결하고 있다. 세월호 기름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우리도 자식 키우는 엄마·아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다.

▲“엄마·아빠, 아직도 널 기다린다” = “○○야, 제발 그만 돌아와라!” 비 오는 날 팽목항의 아침은 자식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엄마·아빠의 절규로 시작된다. 벌써 한달째 이곳의 엄마·아빠들은 아침이면 팽목항 방파제에서 수학여행 간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 단원고 학부모 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승선객 중에는 조리원 등 서비스직 승무원과 일반 승객 가족도 실종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부상 당한 채 비정한 동료들에게 버림 받아 빠져나오지 못한 2명의 조리원 딸들은 체육관에서 “우리 아빠·엄마는 언제나 올까”하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날 수습된 5명의 신원은 DNA 검사를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겨진 23명의 실종자 가족들의 기억없는 기다림은 하염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종자 가족 위로하는 유족들=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른 가족이 실종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이다. 진도 시내 체육관 오른쪽 출입구 처마 밑은 언제나 실종자 가족 아빠들의 휴연 장소다. 체육관 안팎 곳곳엔 ‘금연’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있지만, 아무도 문체 살지 않는다. 지난달 16일부터 자식을 찾아 진도에 내려온 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자녀를 찾지 못한 아빠들은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하루 하루 자식을 만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참사 발생 한달을 하루 앞둔 이날도 처마에 모인 아빠 한 명은 비오는 진도 하늘을 쳐다보다가 뒤돌아서 눈물을 닦았다. 같이 있던 실종 여학생의 아빠는 “말 하나 있는 거 보고 살아왔는데, 찾지도 못하니 원...” 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곧 아빠 품으로 돌아올거야”라며 다시 진도 체육관을 찾은 유가족 아빠는 딸에 대한 그리움에 사모지는 실종자 아빠를 닮아며 아픔을 나누고 있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참사 29일째인 14일 오전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방파제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에 노란 리본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시각장애인 안마사·취업준비생...진도 찾아 아픔 나눠

자원봉사 행렬·구호품 담지

전국이 한마음...2만8300명 참여 진도군청 접수 구호품 72만여점

14일 현재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집계한 봉사활동 참가자의 수는 2만8300명. 센터를 찾아 등록하지 않고 들어가 해상 수색에 나선 어민 등의 수는 집계에서 빠졌다. 하루 평균 1000명 가까운 자원봉사자가 진도를 찾았고, 이들 덕분에 팽목항과 체육관에서는 실종자 가족을 위한 ‘24시간 연속 봉사’가 이뤄지면서 실종자 가족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었다.

봉사활동 참가자의 면면을 보면 ▲시각

장애인 안마사 ▲취업준비생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 유가족들 ▲진도 어민 등 전남지역 주민들 ▲약사·의사 ▲각 지역 봉사단체와 기업 봉사단 등으로 다양했다.

봉사활동 참가자와 함께 구호품도 전국에서 진도로 집결했다. 세월호 침몰 당일 부터 이날까지 진도군청에 접수된 구호품은 모두 72만 5986점(1만1110건)이다. 농장고 8대 부터 ▲쌀 812포 ▲모포와 이불 4만4505점 ▲속옷 등 의류 5만7974점 ▲간식류 7만77051점 ▲세면도구 등 생필품 15만3786점 ▲음료 7만8970점 ▲부식 5만 8217점 등이다.

위낙 규모가 커서 웅덩자 및 대분량, 콘테이너 몇대 분량 등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보관장소도 마땅치

않다. 이날 현재까지 사용되거나 지급된 구호품의 수는 8만3000점.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곧바로 자원봉사 센터에 지원했다가 봉사 단체가 많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한 달 가까이 기다렸다가 지난 12일야야 봉사에 나선 대한민국한식협회 소속 ‘할아버지 조리사’ 등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여전히 봉사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

진도 군청 관계자는 “하루 최대 15만 점까지 구호품 접수가 됐고, 오늘도 김치 등 수백점의 구호품이 밀려 들어 관리하기가 힘들 정도”라면서도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보내 주신 만큼, 기부 목적에 맞게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구호품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진도 군민들 봉사가 먼저 “끝까지 가족들 도울 것”

팽목항이 사고대책본부 등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항구 기능을 상실해 진도와 조도 등을 잇던 선박의 운항 횟수 급감과 주민과 물자 이동이 제한돼 섬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한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함께 세월호 기름 유출 여파로 인해 ‘진도 수산물 기피 현상’까지 빚어진 데 이어, 음식점과 관광업·유통업 등까지 매출 부진을 겪고 있어 어민들은 물론 군민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진도 군민들은 끝까지 함께 실종자 가족을 도울 계획이다. 진도수산단체연합회 정공진 회장은 “마지막 단 한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봉사에 참여한다는 게 진도 어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도=김형호·백현영기자 k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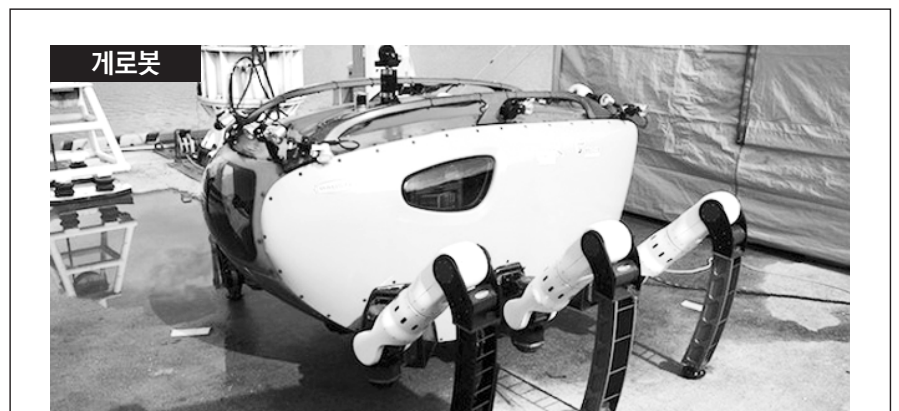
시신 5구 추가 수습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을 수색 중인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참사 29일째인 14일 5구의 시신을 추가 수습했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후 1시 33분께 선미 쪽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시신 1구 등

총 5구를 발견, 수습했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7시 40분을 전후한 정조 시간대에는 거센 조류 때문에 수중 수색을 하지 못했으나 오후 1시 24분께부터 수색을 재개하고 2시간여간 선체 안팎을 수색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신을 수습한 사망자 수는 281명, 남은 실종자는 23명이다. /진도=백현영기자 hypark@



게로봇·다이빙벨 등 첨단장비 속속 투입 함정 139척·항공기 36대 등 대대적 동원

인력 구조·수색 장비들

세월호 침몰 사고 과정에서 민·관·군 잠수사를 비롯해 수많은 인력과 첨단 장비들이 동원됐다. 실종자 수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고 이후 매일 200~300발의 조영탄이 발사됐다. 14일 하루에만 쏘아올려진 조영탄만 264발에 달한다. 어두운 밤에도 수색을 할 수 있도록 채납기 어선 9척이 동원됐고 함정 139척, 항공기 36대, 민간 선박 42척도 해상 수색을 벌였다.

매일 100명 이상의 잠수사가 투입됐고 14일에도 125명이 실종자 찾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사고 이후 잠수사들의 수색 활동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바지선 2척이 동원됐다. 논란이 일었던 잠수사 지원 구조물 다이빙벨과 30개의 관절과 6개의 다리를 이용해 바닷가재처럼 물속을 걸어다니며 해양 탐사 활동이 가능한 해양 로봇 ‘크랩스터 CR200’ 등 첨단 장비도 투입이 시도되는가 하면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방제선 17척도 해상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해 저인망어선 14척을 동원했고, 안강망 8척, 낚자망 9척도 운영중이다. 여기에 침몰선박 인근 도서지역에 낚장망 어선 273척을 투입해 도서 및 연안 유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



세월호 침몰사고 29일째인 14일 오후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승무원 15명 구속기소 방침...유병언 차남·장녀 등 검거 나서

합수부 수사 상황

과적 방지 청해진해운 5명 기소 중추업체 관계자 사법처리키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 등 23명을 수사중이다.

수사본부는 우선, 사고 당시 승객과 동료 승무원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탈출한 혐의로 선장 이준석(68)씨와 항해사, 기관사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선장 이씨와 항해사, 일부 기관부 승무원에 대해서는 ‘부작위(不作爲)

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침몰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물 과적·부실 고박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도 기소할 계획이며 구명장비 안전 점검, 중추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 안전 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2명을 구속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침몰 사고 이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

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 가량을 횡령 혐의에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6일까지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이외 유 전 회장 장남 대군(44)씨에 대한 체포에 나서는 한편,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미(52) 한국계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해서도 검거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국내외에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이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희생자 모욕 댓글 20대 경찰서형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를 본 뒤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이 경찰서형

○14일 경기안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모(21)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10분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를 본 뒤 ‘물에 빠진 개 주인도 못 알아본다. 괜히 구할려다가 인제 잃지 말고 놔둬라’라는 내용 등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는 것.

○이씨는 경찰에서 ‘최근 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 또 다른 인명 피해가 있을까 우려돼 댓글을 남겼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승선객을 게에 비유하며 댓글을 단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수사에 나서 이씨를 검거.

/이종행기자 golee@